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

우리 군은 전략과 전술을 학습하고, 훈련을 반복하며 승리를 경험한다. 적이 생각지 못한 방책과 실전과 같은 훈련 등 적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힘쓴다. 하지만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함께 싸워 승리를 만들어 갈 '전우', 즉 '사람'이다.

인구절벽이 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해안 최전선에서 해안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육군23경비여단의 태동도 이와 맞물려 있다. 우리 여단은 '정책부대와 야전부대가 이제는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절실함과 전 부대원이 인력획득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야전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력획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첫째, 예비 군 간부 대상 야전부대 견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여단을 방문한 사관생도와 학군사관후보생은 대략 442명이다. 서울, 대구, 수원 등 전국 각지의 예비 군 간부들을 부대로 초청해 군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견학을 다녀간 후보생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춘 군인이 될 것인지 목표와 계획을 구



하 태 훈 소령
육군23경비여단 인사참모처

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또한 여단 장병의 육군사관학교 견학을 계기로 장교 임관을 준비하는 용사가 생기기도 했다. 여단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견학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전·사적지 답사와 지역 안보관광 등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둘째, 현재 여단에 복무 중인 장병의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다. 탑팀(TOP-TEAM) 경연대회 우수장병, 선행 및 모범장병에게 포상과 함께 특별한 기념품 등을 수여하고 여단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현재 58명의 부대원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는데,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무 의지가 고취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켰다. 또한 임기제·현역부사관, 간부사관 등 현역의 신분 전환방법을 홍보했

고, 그 결과 올해만 5명의 임기제부사관과 1명의 현역부사관이 임관했다. 간부사관을 준비하는 용사들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역의 재임용 역시 군 경력을 이어가면서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지원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장차 미래 군의 주역이 될 예비 전우들에게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 및 직업 교육, 모교 방문을 활성화하고 있다. 군이 지역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동반자로서 공헌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 지원방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지역축제 때 장비 전시, 포토존 등의 일원으로 동참하면서 대군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책적 접근과 야전부대 차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커다란 폭풍을 만들어 내듯이 인력획득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력획득, 이제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KCTC 훈련을 통해 진정한 전우에 느껴



우 병 현 병장
육군3공병여단 111대대

군인이라면 누구나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훈련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KCTC 훈련에 우리 소대가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우리는 대항군 공병중대 소속으로 훈련에 동참했다. 비록 모의전투였지만 진짜 적이 존재하며,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공격 전투 시 공병정찰조로 최전방 정찰 임무를 맡아 훈련부대를 많이 마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 외로 훈련부대는 보이지 않았다. KCTC 소속 정찰조장에게 물어보니 공병정찰조의 생존을 위해 보병부대가 선두에서 훈련부대와 전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병부대의 엄호 아래 우리는 안전하게 공병정찰을 할 수 있었다.

공병정찰을 통해 우리는 훈련부대가 설치한 지뢰지대를 발견했다. 공병정찰조는 지뢰지대의 위치를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형태와 주변 우회로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발견했던 지뢰지대는 우회로가 없어 지뢰지대에 들어가야만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있었다. 정찰조 모두 망설이고 있을 때 정찰조장과 1명의 조원이 용감히 지뢰지대에 들어가 정확한 형태를 파악했다. 안타깝게도 지뢰지대를 나오던 중 2명 모두 지뢰를 밟고 사망했다. 다음 날, 발견했던 지뢰지대를 안전하게 개척한 뒤 우리 아군의 기동로를 확보해 훈련부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는 전투상황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과연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주변 전우들의 안전을 위해선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하게 적과 전투를 치러야 했다. 곁에 있던 전우들이 미확인 지뢰지대를 정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필사 즉생의 용기를 내는 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CTC 훈련은 실제 전투가 아닌 모의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임을 이번 훈련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또 KCTC 훈련을 하면서 전장상황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전우애를 느꼈다. 평소 체험할 수 없었던 경험과 더불어 전우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투현장에서 비겁하게 숨기보다는 용감히 적과 싸울 수 있는 군인정신이야말로 곁에 있는 전우와 나를 지키는 길이자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된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남수단에 희망의 씨 뿌리다

부모님은 세종대왕처럼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이름을 '세종'이라고 지어 주셨다. 사람의 이름은 운명을 타고나는 것인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비록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살고 자랐지만, 한국 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성인이 되자 한국군 입대를 선택했다. 국군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었다.

육군6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기회가 돼 남수단 한빛부대 17진 민군과 통역병으로 해외파병을 가게 됐다. 당시 한빛부대는 남수단 재건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 내가 투입된 프로젝트는 벼 시험재배장 운영이었다.

현지 대학과 협력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그곳에 접목하고 남수단이 식량 재배부터 수확까지 모든 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프로젝트 진행 때 한빛부대와 남수



박 세 중 병장
육군6보병사단 용문산여단

단 대학 사이의 통역을 맡으면서 현지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문화교류를 하게 됐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백성들을 이은 것처럼 나 또한 통역자로서 사람들을 잇는 임무를 맡은 것이다.

그중 한 친구가 자기 마을의 열악한 식량 상황을 들려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쌀 재배기술을 배워 가족과 고향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많은 대학생이 이번 프로젝트로 농작물 경작기술을 익혀 남수단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제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는 한국군 덕분에 이 프로젝트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실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파병기간이 길어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벼가 자라고 마침내 수확시기가 되자 한껏 기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임무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남수단에서의 파병 임무는 길고 힘들었으나 남수단인을 도울 수 있어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 온 경험 중 가장 보람찬 일이기도 했다. 남수단에서 만난 친구들처럼 나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남수단에서 땀방울을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는 한빛부대처럼 한국이나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잇는 사람,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부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 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매월 말 응모한 휴대전화 번호로 차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35, (일반)02-2079-3735